

계지의 본초학적 연구

박종희*

부산대학교 약학대학

Historical and Herbalogical Studies on the Gye Ji

Jong Hee Park*

College of Pharmacy, P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609-735, Korea

Abstract – Chinese crude drug ‘Gye Ji(桂枝)’ is listed in Shen-nung-pen-tsao-ching(神農本草經), as the remedy for dispelling pathogenic factor from the exterior of the body by diaphoresis. In Korean, herbals origin of Gye Ji is branch of *Cinnamomum cassia*. Considering the descriptions in many herbals(本草書), the origin of Gye Ji reported by Su-Ching(蘇敬), Han-Pao-Sheng(韓保昇) and Li -Shin-Chen(李時珍) is regarded as the bark of branch of *Cinnamomum cassia*.

Key word – Gye Ji, *Cinnamomum cassia*, Shen-nung-pen-tsao-ching, origin

계피(桂皮)는 옛날부터 發汗解表, 溫經止痛의 약물로서 널리 사용되어 왔으며¹⁾, 대한약전9개정²⁾에 육계 *Cinnamomum cassia* Blume 또는 기타 동속 근연식물(녹나무과 Lauraceae)의 수피 또는 주피를 다소 제거한 수피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계지(桂皮)는 대한약전의 한약(생약)규격집³⁾에 육계 *Cinnamomum cassia* Blume 또는 기타 동속 근연식물(녹나무과 Lauraceae)의 어린가지라고 규정되어 있다. 중국의 중화인민공화국약전⁴⁾에는 *Cinnamomum cassia*의 수피를 육계(肉桂), 어린가지를 계지(桂枝)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의 제15개정 일본약국방⁵⁾에 계피는 *Cinnamomum cassia* Blume 의 수피 또는 주피의 일부를 제거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향료로서 유명한 계피는 스리랑카 계피인 *Cinnamomum verum* J.S.Presl이며, 인도의 남서부,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원산으로 *Cinnamomum cassia*보다 잎이 둥글고 수피가 두터운 특징이 있다⁶⁾. 계피의 대용품으로 사용되는 식물로 태국산의 태국계피 *Cinnamomum iners* Reirw. ex Blume, 자바계피 *Cinnamomum burmanni* Blume, 보르네오 계피 *Cinnamomum cililawan* Blume 또는 *C. javanicum* Blume, 대만육계 *C. pseudoloureirii* Hayata 등이 있으며⁷⁾, 지역에 따라서 여러 종류의 생약이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많은 종류의 계피류 생약들이 약물 또는 식품

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계지를 *Cinnamomum cassia* Blume의 가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것을 규명하기 위하여 본초학적으로 연구하였다.

본 론

계피는 중국의 최고 약물서적인 신농본초경(神農本草經)의 상품에 모계(牡桂)와 균계(菌桂)의 이름으로 「治百疾, 養精神, 和顏色」의 용도로 수채되어 있으며⁸⁾ 桂枝湯, 桂枝加芍藥湯, 桂枝茯苓丸, 溫肺湯, 五苓散, 八味地黃丸, 安中散 등 일반용 한방제제 210 처방 중에서 63개에 처방되어 있는 중요한 약물이다⁹⁾.

인도의 아올베다 의학서인 슐다본집에는 tvak와 coca의 2종이 기재되어 있으며¹⁰⁾, A.D. 1세기의 그리스 본초인 De Materia Medica에는 kinnamono 와 kassia의 2품명이 기재되어 있다.¹¹⁾ 이와 같이 계피는 옛날부터 동서양에서 모두 복수의 *Cinnamomum*속 식물이 약용으로 사용되어 왔다고 생각된다.

모계(牡桂)와 균계(菌桂)에 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다. 신농본초경집주(神農本草經集註)¹²⁾에서 균계(菌桂)는 대나무 처럼 둥글고 삼중으로 말려진 품질이 좋은 것, 모계(牡桂)는 얇으며 지육(脂肉)이 적은 것으로 수채되어 있다. 신수본초(新修本草)¹³⁾에 菌은 蔞이라는 글자와 비슷하기 때문에 의 잘못으로 菌을 사용한 것이 습관화 되어서 桂皮의 蔞狀의 모양을 나타내었다고 생각된다. 또한 촉본초(蜀本草)에 균계(菌桂)는 잎이 감잎과 비슷하며, 모계(牡桂)의 잎은 비파

*교신저자(E-mail): abpark@pusan.ac.kr
(FAX): 051-513-67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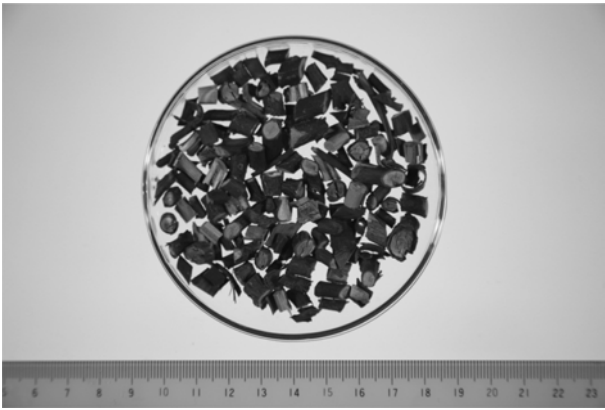


Photo. 1. Gye Ji from Korean Mark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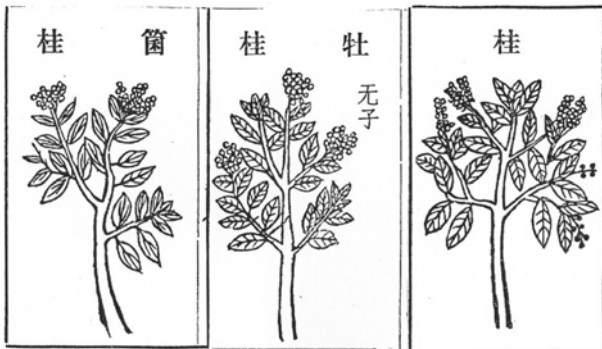


Fig. 1. Pen-tsao Kang Mu (本草綱目)

잎과 비슷하다고 기재하고 있으며¹⁴⁾, 잎과 형상에서 균계(菌桂)는 *Cinnamomum verum*, 모계(牡桂)는 *C. cassia*라고 추측이 가능하다.

그러나 본초습유(本草拾遺)¹⁴⁾에는 균계(菌桂)와 모계(牡桂)가 같은 식물로서 껍질이 두껍고 어린 것으로 통상 말려져 있는 것을 균계(菌桂), 껍질이 얇고 판상의 오래된 가지를 모계(牡桂)라 한다고 기재하고 있다.

또한 명의별록(名醫別錄)¹⁵⁾에는 모계(牡桂), 균계(菌桂)와 더불어 계(桂)라고 하는 이름이 수재되어 있다. 이시진의 본초강목(本草綱目)¹⁶⁾에는 모계(牡桂)중에서 껍질이 두껍고 맛이 매운 것을 계(桂)라고 하였으며, 모계와 계(桂)는 같은 식물이라고 기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생약 계피류가 혼란스러운 것은 비슷한 *Cinnamomum*속 식물이 넓은 지역에 분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상한론¹⁷⁾등의 중국의학 서적에는 모두 계지(桂枝)의 이름으로 처방되어 있지만, 현재 중국에서 생약명 육계(肉桂), 계지(桂枝)에 관해 처음으로 언급된 것은 신수본초(新修本草)이다. 신수본초(新修本草)에서는 모계(牡桂)의 별명으로 육계(肉桂), 계지(桂枝)가 기록되어 있으며, 촉본초(蜀本草)에는 모계(牡桂)의 어린가지의 껍질을 계지(桂枝)또는 육계(肉桂)라고 하며, 상피(上皮)를 제거한 것을 계심(桂

心)이라고 하였다. 또한 본초비요(本草備要)에는 육계와 계지의 차이에 관해서 자색으로 두꺼운 것을 육계(肉桂), 어린가지의 껍질을 계지(桂枝)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이것이 잘못 전해져서 수피가 육계(肉桂), 어린가지가 계지(桂枝)로 표현된 것 이라고 생각된다.

결론 및 고찰

1. 우리나라에서 계지탕 등의 처방에 이용되고 있는 계지는 신수본초(新修本草), 촉본초(蜀本草), 본초강목(本草綱目), 본초비요(本草備要) 등에 수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Cinnamomum cassia*의 어린 가지가 아니고 가지의 껍질 즉 계피(桂皮)인 것이다.
2. 대한약전의 한약(생약)규격집에 기재되어 있는 계지는 대한약전의 육계와 통일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3.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계지탕 등에 처방되는 계지는 *Cinnamomum cassia*의 가지를 사용하지만, 앞으로 계지가 아닌 계피를 사용함으로써 계지탕의 효능이 올바르게 나타나서 국민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어야겠다.

인용문헌

1. 박종희 (2002) 한약백과도감 상, 41. 신일북스, 서울.
2. 식품의약품안전청대 한약전9개 정 편찬위원회 (2008) 대한약전, 961. (주)YST, 서울.
3. 식품의약품안전청 (2007) 대한약전의한약(생약)규격집, 42. 도서출판 동원문화사, 서울.
4. 國家葯典委員會編 (2004) 中華人民共和國葯典, 91. 化學工業出版社, 北京.
5. 日本葯局方解説書編集委員會編 (2006) 第15改正 日本葯局方解説書, 199. 廣川書店, 東京.
6. 三橋博 (1988) 原色牧野和物漢藥大圖鑑, 127. 北隆社, 東京.
7. 難波恒雄 (1993) 和漢藥百科圖鑑, 140. 保育社, 大阪.
8. 森立之中輯 (1955) 神農本草經, 28. 中國古典醫學叢刊, 上海.
9. 江克明, 包明蕙 (1989) 簡明方劑辭典, 867. 上海科學技術出版社, 上海.
10. 大地原眞玄譯, 矢木野道雄校訂(1993) スシユルタ本集, 133. たにぐち書店.
11. 小川鼎三, 紫田承仁 (1983) デイオスコリデスの 葯物誌, 14. エシタプライズ株式會社, 東京.
12. 陶弘景編 (1994) 本草經集注, 215.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3. 蘇敬撰 (1981) 新修本草, 304. 安徽科學技術出版社, 合肥.
14. 李時珍原著, 木村康一等譯 (1978) 註頭國譯本草綱目 第34券, 117. 春陽堂, 東京.
15. 陶弘景集 (1986), 名醫別錄, 35.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6. 李時珍 (1974) 本草綱目, 1927.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7. 大塚敬節 (1985) 傷寒論解説, 145. 創元社, 大阪.

(2008년 3월 18일 접수)